

2016 년 11 월 20 일 주일 설교

“네 마음을 데우라”(Warm Your Heart)

말라기서 3:13-18

1.

Happy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모든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변에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위로와 자비를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으면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갖추고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살만한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인이 삶의 만족도에서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 사람들만 못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돈 혹은 물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권력은 어떨까요?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뉴욕의 트럼프 타워 내부에서는 치열하고도 비정한 권력 암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권력이 중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들의 표정과 외양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볼 수 있던가요?

건강도 역시 만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도 혹은 심한 병을 앓으면서도 건강한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만족하게 사는가 하면 충만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 불만 가득하게 살기도 합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어느 정도의 물질적 혹은 외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혹은 하려는 일을 이루는 것도 큰 만족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만족되어 느끼는 행복감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지혜를 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 4:23)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은 삶의 모든 일들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고승 원효는 이 사실을 극단적으로 확대시켜서 세상 모든 일이 마음의 조화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선물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내 인생을 무덤에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천국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마 6:22-23)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눈은 마음을 가리키고 몸은 인생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하고, 마음에 병이 들면 삶에도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겪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을 해 보면 압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고 마음으로 지옥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 2.

지난 주에 우리는 ‘전교우성경일독’ 진도를 따라 구약성경의 마지막 두 책 즉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맞추어 말라기서의 예언을 묵상하려 합니다.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의 ‘말라버린 마음’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정착하여 산지 백 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어졌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여러 가지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년 전,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 땅으로 돌아 왔을 때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 여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 했을 때 그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식어졌습니다.

그렇 만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로서는 지형적으로 너무도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항상 번성했고 그 부가 유다의 다른 지역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갔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루살렘은 과거의

영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다 땅은 원래가 대부분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 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좋지 않은 외적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도 쉽게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굶은 날이 며칠 지속되면 금새 우울해지고 침체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악한 외적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마음이 식어지면 말과 행동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지자 유다 백성은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 거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2)

여러분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한 두 번은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어도 그런 생각은 해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자녀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까?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그동안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마음이 식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으니 이런 망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백성은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 짬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1:12)

이 얼마나 싫증나는 일인가! (1:13)

만일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혹은 이렇게 투덜거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저는 자격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준비한 예배에 은혜가 있을리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 혹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부모에게 끌려서 억지로 예배에 오는 아이들 이야 가끔 그렇게 투덜 거릴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혹은 그런 태도로 예배를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망발은 제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한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2:17)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반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3:14-15)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실제적 무신론’(practical atheism)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지도 않는다고 믿으니 무신론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식어지니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자신들의 눈 앞에 있는 일들만 보고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착각하고는 불신과 회의와 모독이 가득한 생각과 말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 3.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이 됩니다. 유다 백성은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그 불신과 회의와 모독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 유다 백성의 세 가지 죄를 꾸짖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은 죄를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를 쌓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니 제사 드리는 것이 의미 없어지고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니 제사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 드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1:8)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아깝고—그것이 제사를 대하는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제사에 드릴 짐승을 골랐으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양이 보였겠지요.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어차피 죽을 놈인데... 죽으면 팔 수도 없고... 죽은 고기를 먹기도 그렇고... 제물로나 쓰자.’

여러분에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 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고 노력할 것이고, 할 수 있는대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버릴 수는 없고 쓸 데는 없는 물건을 포장해서 준다면 그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1:10)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의 일입니다. 30 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섬기던 학교가 서울집과 당진 고향집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곧바로 퇴근하여 시골집에 내려가 자고 올라 왔습니다. 당시 손으로 지은 밥을 먹는 자식을 보는 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길에 읍내 시장에 들러 과일이나 과자 같은 선물을 사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러십니다. “이런 건 내가 알아서 사면 되니께 기냥 돈으로 다구.”

그래서 다음 부터는 하얀 봉투에 뽀뽀한 돈을 넣어 어머니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시장에 들러 뭘 사야 좋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아주 홀가분하고 편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6 개월이 지났을까요?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께 용돈 봉투를 찢러 드렸더니 그러십니다. “이번에두 봉투 뿐잉감? 그렇게 말했다구 어떻게 그렇게만 허냐?” 저는 “엄니가 그렇게 허라매유”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습니다. 선물을 봉투로 바꾸면서 저의 정성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마음을 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오는 것이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진실한 감사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아까운 마음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며 죄를 쌓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면서 죄를 쌓는 것입니다.

4.

둘째, 유다 백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곧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지니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도 식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예로서 결혼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그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지금까지도 순수 유대 혈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았고, 그러기 위해 아내를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두 가지 점에서 배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 버렸으니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언약을 맺은 그 아내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 하나님이 맺어 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2:16)

여러분 중에도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기에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 중에 이혼이 좋아서 그렇게 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이혼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지속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혼이 어쩔 수 없이 택해야만 하는 차악일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피해자로서 이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반면, 이혼이 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아니 좋아 보이는)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외도로 인해 결혼을 파탄 냈다면 혹은 학대나 폭행으로 결혼을 파탄 냈다면 그 사람은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혼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2:15)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만을 보아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보든지 삼위일체적인 시각으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외적 조건에 상관 없이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다
- 성자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그를 구원하셨다
-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뜨거우면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식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버립니다.

5.

셋째, 유다 백성은 '일' 속에서 죄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훔쳤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3:8)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몫을 드리지 않았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십일조 헌금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말라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들어 십일조를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논리를 들이 민다 해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 자신은 압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몫을 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4 시간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과만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 있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따뜻해져 있으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시간이 감미롭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몫을 흠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양보하라고, 때로는 희생하라고, 때로는 선으로 악을 대하라고, 때로는 모욕과 아픔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몫을 흠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마 23:23)

정의가 필요한 때에 침묵하고 비겁하게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을 흠치는 것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냉담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을 흠치는 것입니다. 신의를 배반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몫을 흠치는 것입니다.

살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드릴 몫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물질의 십일조입니다. 제가 어머님께 용돈 봉투를 드리는 것에 제일 쉬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것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6.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는 목요일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일입니다. 이 감사절에 성령께서는 말라기서의 예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 보라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의 온도를 재어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깊고 아름다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음식 준비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동안 받은 복과 은혜를 세어 보면서 굳은 마음은 녹이고 식은 마음은 데우고 흠어진 마음은 모아야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G. K. 체스터턴은 “감사는 가장 고상한 사상이며, 행복에 기적을 더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매일의 삶의 원리가 된다면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물질적인 상황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부디, 오직 감사로써 매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불을 주셔서 차가워진 마음을 데워 주시고  
주님의 열로써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흠어진 마음을 모아 주소서.  
주님께 대한 저희의 마음이 늘 따뜻하도록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예배처럼 섬기도록  
주님, 저희를 불드소서.  
아멘.

<속회자료> 2016년 11월 20일 주일설교

“네 마음을 데우라”(Warm Your Heart)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92장(통 311)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말라기서 전체를 돌아가며 읽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을 돌아가며 나눕니다.

(10분)

4.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2)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한 말들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과거에 그와 비슷한 생각 혹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3) 유다 백성이 행동으로 죄를 쌓고 있던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온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기도

1)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당신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2)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429장(통 489)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